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빌립보서 3:4b-14

2020년 10월 4일

상상을 한 번 해 보세요.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꽃들이 놓여 있고, 은은하게 오르겐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시신이 누워있는 곳에 가 봅니다. 가 보니 그 곳에 당신이 누어있습니다. 바로 몇 년 후에 당신이 있을 곳에 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아 보니, 장례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펴 보니까, 4 사람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족 중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친구 중의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같이 일하는 동역자 중의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교우 중의 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삶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남편으로, 어떤 교인으로, 어떤 자식으로, 어떤 동역자로, 어떤 친구로 기억에 남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어디서 우리는 이 생을 마치게 됩니다. 제 쌍둥이 동생이 사고로 일찍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제 나이 21 살이었는데, 어린 저는, 두가지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죽는구나 그리고 언제 죽을 지는 모르는구나. 그 때부터,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 장 말씀입니다.

14 절 말씀에, “뿔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도 달려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을 향하여 가는 바울은,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 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함께, 바울이 걸었던 믿음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7 절 8 절 9 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빌 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현대인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7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8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그 분과 완전히 하나되기를 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 명예, 지식, 경험 그리고 현재의 모든 것들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쓰레기 처럼 여겼다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그리스 원어로는 쓰레기가 아니고, 개역 성경 번역한 것 처럼, “배설물”입니다. 똥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주로 알고 지내는 것이 인생 살이에 최고로 소중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랑 할 것이 많았던 바울입니다. 5 절 6 절에 보며는,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빌 3: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의 장례식에서, 바울의 태생이 얼마나 좋았는지, 가문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율법학자로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지.. 나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를 알고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30 년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남 이후로,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30 년 후가 지난 지금도,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만나는 것과 누구를 아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것하고 아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30 중반에, 백악관 초대를 받고, 워싱턴에 갔었습니다. 빌 클린트 대통령을 만나는 줄 알았는데, 대신, 알 고어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영광이었던 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분을 만났지만, 그 분을 모릅니다. 물론 그 분도 저를 모릅니다.

10 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지식을 쌓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다라는 말은,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알릴 때 사용된 성경 단어입니다. 창세기 4 장 1 절 말씀에 보며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며는, “Adam knew his wife Eve and Eve conceived and bore Cain.” 안다는 말은, 동침을 했다는 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깊고 친밀한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많으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 여정에, 참으로 소중한 보배입니다. 왜요? 10 월 1 일에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 1 장 24 절 말씀에,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사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결국 하나가 되어 산다는 것 만큼 소중한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이것의 우리 믿는 자들의 영성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왜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입니다.

저는 많은 감사 중에 특별히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 생활에, 많은 변화 생겼고, 그 변화에 적응하느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0 시 영어 회중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 시, 한 장씩 읽으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침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음공장에서 일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톱밥이 쌓여 있는 곳에서 값비싼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와 함께 2 시간 이상이나 시계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어떤 어린 소년이 그의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꼬마야, 그 시계 어디서 찾았니?" "예, 제가 톱밥 위에 앉아 있는데 시계 소리가 '째깍 째깍'하고 들렸어요." 대답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정신없이 요란하게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 3:1)고 하였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깊이 사모하고 생각하는 교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역자는 매일 한 시간 나무와 침묵으로 대화한다고 합니다. 나무 앞에서 침묵하며 동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본다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표현되지 않은 언어, 즉 인간이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원색의 언어를 날마다 새롭게 들을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연에는 엄청난 침묵의 언어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꽉 차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 속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10 시 예배 시간에, 교회학교 교장인 흘랭크린이 어린이 시간에 손가락 다섯 손가락 기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눕니다. 엄지는 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 친구..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두번째 손가락,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멀어서 손가락으로 가르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남미 지역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가장 키가 크지요? 우리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들, 국회의원들, 회사의 중역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지끼는 손가락은, 가장 약한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힘없는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고통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손가락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이웃들과 세상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한 후에, 제일 나중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외과 의사 아빠가 수술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묻기를, "아빠, 그 사람의 몸 안을 칼로 찢어서 열어 봤어요?" "그랬지." "그 사람 몸 안에, 허파도 보고 위도 보았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도 보았어요?" 이 때, 외과 의사 아빠가 답하기 전에, 6 살 짜리 여자 동생이 끼어 들면서, "아빠, 그 사람 마음 속에 예수님도 보았어요?"

이 질문에, 켈틱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사슴의 울부짖음” “The Deer’s Cry” 의 일부입니다.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밑에 계신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오른쪽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왼쪽에 계신 그리스도, 누워 있을 때 함께 계신 그리스도, 앉아 있을 때 함께 계신 그리스도, 일어날 때에 함께 계신 그리스도.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나에게 말을 건네는 모든 사람의 입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눈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의 삶의 구석 구석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만나시고, 믿음 여정에, 환희와 승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